

亞細亞 太平洋地域 博物館 研討會議 略報

李 康 七

지난 76年 5月23日부터 同月29일까지 一週日間 自由中國 臺北市에 있는 國立歷史博物館에서 第一回 亞細亞 太平洋地域 博物館 實務者 研討會議가 開催된 바 있다.

이 모임은 서울에 있는 亞細亞 太平洋地域 文化·社會센터와 自由中國의 文化 社會센터가 共同으로 主催한 것으로서 博物館의 經營人, 管理人, 技術人們로 構成하여 그들의 經驗을 通한 見解와 專門的인 意見을 討論하고자 하는데 그目的이 있었다.

그리하여 이 趣旨에 讀同하고 參席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為始하여 美國,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보르네이, 中華民國, 프랑스, 구암, 홍콩, 日本, 필리핀, 싱가포르等 모두 12個國의 代表51名이 參加하였다.

한편 共同主題로는 博物館 經營에 關한 問題와 保存과 復舊에 對한 技術에 關한 것. 그리고, 아시아 國家間의 歷史學交流를 通한 人類 開拓上에 遺產을 깊은 關係와 더불어 相互間에 올바르게 認識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또한 國際間에는 各國 代表들이自己나름대로 또한 그들의 專門分野別로의 學術的인 文化交流와 資料 交換의 門戶가 開放된 것이라 하겠다.

아울러 이번 開催된 博物館 關係者 研討會議는 國際間에는 처음 試圖된 事業이었는데 大體로 成功的으로 끝을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는 最初 이事業을 計劃한 亞細亞 太平洋地域 文化·社會센터 事務總長 李東煥博士와 梅可望博士의 꾸준한 勞力의 結晶이고, 한편 實務를 担當한 中華民國 臺北所在 國立歷史博物館長 何浩天先生의 積極的인 推進力의 結果였다.

더욱 우리나라의 境遇 大學博物館協會 創設以來 協會가 周旋하여 外國視察을 實現시킨 것은 두 번째의 成事로써 매우 뜻있고 보람찬 事業을 推進하였던 것이다. 이미 周知하는 바와 같이 第一次에는 一二陣으로 區分하여 第一陣은 協會長 金錫淳館長一行과 第二陣은 李潭周教授一行이 中華民國을 經由하여 日本의 各博物館을 두루 視察하여 實務者로서의 見識을 넓혔고, 第二次 研討會議時에는 協會校에서 3名(嶺南大學校 博物館長 金宅圭博士, 建國大學校 博物館 李潭周教授와 筆者)과 文化公報部에서 2名(國立慶州博物館 韓炳三館長과 國立民俗博物館 孟仁在館長)과 모두 5名이 參席하였다.

研討會議 場所는 國立歷史博物館內 遵彭廳에서 舉行하였으며, 每日 各國 代表의 發表에 이어 討議式으로 進行하였다. 특히 中華民國의 華岡博物館 陳國寧館長의 大學博物館의 効果的인 經營을 增進시키는 方法이라든가 何浩天館長의 歷史的인 國立博物館에 있어서의 陶磁器의 保存과 復舊에 對한 發表는 本會議에 參席한 各國代表들에게 깊은 感銘을 주었다.

또한 連日 討議가 끝나면 各博物館을 두루 視察하였는데 특히 故宮博物院이나 歷史博物館에서 現在 運營 施行中인 各種 遺物에 對한 科學的 處理方法等은 많은 關心을 주었고 陳 輝教授의 剪紙藝術 示範은 매우 興味로운 順序였다. 이어 會議 六日째 되는 날은 觀光길에 올라 午後에는 飛

行機로 高雄에 到着하여 觀光開發地로 有名한 澄清湖와 經濟建設相을 두루 돌아본 後 버스便으로 臺南에 到着하였다. 臺南에서는 張麗堂市長의 따뜻한迎接으로 市政全般에 對한 現況聽取에 이어 清康熙4(1665)年에 建立한 孔子廟와 1680년에 建立한 開元寺等을 參觀하였고, 더우기 安平古堡(原名은 热蘭遮城)와 延平郡王祠(鄭成功의 祠堂) 들에는 지금도 옛 火繩砲(銘文:嘉慶十九年 仲冬奉 憲鑄造臺灣水師協標石管大砲一位 重一千五百觔)를 砲車에 舉砲시켜 놓은것과 그대로 露天에 陳列시킨 것을 볼 수 있었다.



韓國代表席

研討會議期間동안 進行된 日程과 發表된 모든 資料는 이미 刊行되어 參加者들에게 配本이 9月末頃에 完了되었다. 그중 最終日에 共同 채택된 報告文을 紹介하고 拙文을 맷으려 하려니와 이 報告書는 이 方面에서 手苦로움을 같이하는 여러분이나 또한 뜻있는 분에게 或 參考가 되어질 事項이 있을까 하는 微衷에서 試圖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博物館 심포지움의 報告文

1. 文化財 保存에 關한 最近의 科學的이고 技術的인 研究에 對한 結論

文化財 保存의 重要性은 言及되어 왔다. 그러나 때론 그것은 不充分한 技術 때문에 保存의 過程에 있어서 그 技能이 바람직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오늘날 技術의 革新과 우리가 할 수 있는 科學的 技術의 採擇은 그 結果가 바람직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要點들을 成就하는데 努力を 기울려야 한다.

- 가. 人間과 自然에 依해 생길 수 있는 損傷들은 政府와 教育의 시스템의 도움으로 損害를 줄여야 한다.
- 나. 個人 또는 公的인 蕐集品 가운데서 文化的 遺產들을 保存하여야 한다.
- 다. 科學的 技術의 研究를 財政上 뒷받침하여 時代를 앞선(가장 最近) 情報를 交換한다.
- 라. 研究 課題와 물건들의 存續을 좀더 오래하기 爲한 發達과 保存을 강조한다.

2. 文化財 保存에 있어 現在 使用된 技術에 對한 結論

理論上 文化財의 保存은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過程을 通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細菌을 根切시키고 비기판의 物質에 依해 危險하게 된 물건에 防腐劑를 첨가하고, 낮은 温度와 適當한 乾燥로 活動하지 않는 空氣 속에서 빛으로부터 차단해야 한다. 技術은 나날이 變化한다. 金, 銀, 銅, 朱錫, 유리, 陶磁器, 玉과 같이 비기판으로 된 물건의 保存의 方法은 象牙나 털, 뼈, 종이, 섬유, 나무와 같은 기판을 가진 물건들과의 保存方法에 있어서 다르다. 適當한 保存方法이 適用되기 前에 物理的, 化學的, 生物學的 양상에 對한 客觀的인 研究가 먼저 實行되어야 한다. 例를 들어서 酸素 温度에 對한 물건의 反應이나 濕氣에 對한 調整, 빛에 露出된 部分의 永續性 公害, 細菌과 外的인 侵害와 사람의 손 땀에 依한 더럽혀짐 등이 考慮되어야 한다.

3. 即刻的인 復舊와 保存에 있어서의 文化財에 關한 結論

文化的 遺物의 保存은 保存과 復舊를 포함한다. 保存은 물건의 存續을 길게하고, 藝術作品 들을

損傷으로부터 保存하는 것에 重點을 둔다. 復舊는 쪼개진 部分을 原狀化하고 復舊시키므로써 먼저 形態의 再構成을 為한 實質的인 技術을 必要로 한다.

先進國들과 先進國 대열에 서는 나라들은 물건들을 保存하게 하는 專門家들을 必要로 한다. 經濟的 發展은 國民들로 하여금 그들의 菲集 趣味를 滿足스럽게 했다. 그 保存의 問題가 따른다. 따라서 博物館은 專門家들을 돌아보고 育成하여야 한다. 이런 狀況에서 博物館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國籍의 다른을 莫論하고 技術과 經驗을 交換해서 文化的 遺產들을 保存하는데 協力해야 한다. 亞細亞 太平洋上의 博物館은 經驗과 技術을 때때로 서로 나누며 協力해야 한다.

4. 國家의인 文化財를 保存하는데 國家의 世界的 協力에 關한 結論

歷史의 重要性과 藝術的 價值의 文化財들은 그나라의 精神을 象徵한다. 그들은 適當히 保存되어 後孫들에게 傳해야 한다. 博物館은 保存해야 할 責任과 그들 國民의 利害를 增進하기 為하여 文化的 遺產들을 展示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保護의 傳統的 過程과 保存의 現代的 技術은 가장 必要하다. 또한 專門家와 接觸하는 것이 더 좋으며 박물관의 技能을 強化하기 為해 다른 나라의 學者와 關係하는 것도 좋다. 協同의 領域은 다음과 같다.

가. 協同을 為해 모든 博物館들은 그들의 研究한 課題를 發表하여 交換하는것을 繼續해야 한다.
나. 菲集과 保存의 相互 理解를 為하여 서로 訪問한다.

다. 文化的 遺產들의 保存을 기리기 為하여 各 博物館은 國際的 展示를 為해 藝術的 遺物이나 물건을 供給하여야 한다.

라. 博物館 심포지움은 새로운 經驗과 知識의 交換과 保存을 為하여 定期的으로 行하여져야 한다.

5. 博物館 經營에 對한 結論

博物館 經營의 主要 關心은 盜賊과 火災 防止에 強調한 安全이다. 새 建物에서 盗賊 防止를 為해 유용한 것들로 수 없이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로 쓰기전에 우리는 기계적으로 유용한 것은 자가 충족 됨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사람이 그속에서 重要한 役割을 해야 한다.

큰 博物館에는 여분의 警備員들이 必要하다. 安全警備員은 觀覽者들에게 기분 나쁘게 보이지 않기 為해서 制服을 입는 것이 더욱 좋다. 늘 博物館의 陳列品들은 稀貴하고 價值 있는 것들이다. 安全에 對한 完全한 管理는 必要 不可缺하다. 만약 建物이 오래 됐으면 安全의 責任은 더욱 무겁다. 공공 安全은 더 가해지고 危險한 장내는 피해야 하고, 危險한 기름이나 석회의 博物館 안에 貯藏은 避해야 한다. 電氣 施設은 조심스럽게 架設되어야 하고 그線이 있는 곳도 表示 되어야 한다. 또 한 그地方의 消防署나 災害 對策本部 火災本부와의 緊密한 關係가 重要하고 電氣施設의 規則的인 點檢도 重要하다. 火災防止 物質은 博物館 施工때 이미 計劃 되어야 한다. 博物館은 또한 다음의 安全을 認識해야 한다.

첫째 巡察을 보내 建物안에서 觀覽者들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

둘째 博物館 안에서 火災防止 정도를 발달 시키고 규칙적인 점검을 한다. 火災事件들은 參考와 安全計劃을 為해 記錄되어야 한다.

6. 우리는 다음 亞細亞 太平洋地域 博物館 심포지움을 日本에서 開催할 豫定이며 ASPAC 文化 社會센터와 日本博物館協會가 스폰서가될 예정이다.